



# 안전 · 건강한 급식환경 여수시가 앞장서 조성

## 무상급식 ·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교육 진행



여수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급식관계자 교육을 열었다.

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시 농업 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지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보육시설 유

료 지원에 시비 포함 예산 35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여수시 모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GMD 사용 가공품을 차단하기 위해 간장, 된장, 두부 등 식재료 구입비 4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해 급식시설과 급식 공급업체에 잔류농약 검사와 원산지 표시 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15억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 시작했고 2015년 7월에는 학교급식 식지원센터를 개소해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 기반을 구축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강진군,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개장前 친절·위생 교육



강진군은 지난 19일 마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관계자 간담회 및 친절·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의 4월 6일 개장을 앞두고

고 놀토수산물시장 상인회 할머니장터 참여자, 수협위원장 종매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지난해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총 매출액 21억 원, 총 방문객 13만 명을 기록하며, 강진 경제 활성화의 기록적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으로 '감성', '주역', '실속'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강진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탄탄한 지갑을 열게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및 친절·위생 교육에 참석한 이승욱 강진군수는 "마량

놀토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깨끗한 수산물물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여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강진군이 수산물 유통·판매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올해에는 해상북카페 개장, 화프기 쇼, 미항토요음악회, 강진 청자 경매 등으로 내실 있게 준비, 더욱 다채롭고 이색적으로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지역갈등 해결사로 나서

### 연화마을 축사건축 갈등 해소 합의문 채택

지난해 출범한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가 최근 장평면 연화마을 앞 축사건축을 놓고 발생한 축사건축주와 연화마을 주민 간의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3일 채택된 축사 건축관련 갈등 해소 합의문에 따라 축사건축

주는 축사 사육두수를 200두에서 160두로, 사육면적도 1,903㎡에서 1,496㎡로 축소하고, 군은 축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 등을 이행하게 된다.

연화마을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연화마을 주민들이 마을입구에 신축되는 축사(우사)와 관련해 축사

건축주와 인허가를 내준 담양군을 상대로 악취·소음·폐수 피해를 주장하며 발생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마을주민과 축사건축주, 건축인허가 부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 현장과 연화마을을 방문하며 총 5회에 걸친 갈등조정 끝에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영암군,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영암군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중점과제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안부 기관 및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특·광역

시, 도, 시·군·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뉘 이뤄졌으며 영암군은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하반기에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방재정 확대 및 집행으로만 2억7,500만원(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3,500만원 /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4,000만원 / 지방재정확

대 최우수 2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연초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상황실을 구성·운영해 재정집행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실과소 보고회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중앙정부 목표(집행률)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 화순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설명회 개최

화순군은 지난 19일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읍·면별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 사업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해 다른 작물의 자급을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

군은 쌀 전업농, 조사료 경영체 등 대농을 대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지침과 추진 계획 등을 공유·홍보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379ha를 목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 대상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이거나 2018년에 벼 재배가 실제 확인된 농지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가다.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대폭 인상되고 '휴경지 지원'도 신설돼 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료의 경우 30만 원, 두류는 45만 원이 인상됐다.

지원 단가는 조사료 430만 원, 일 반·꽃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으로 평균 340만 원가량이다.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 제14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 24일 개최

오는 24일 장흥군 탐진강변 체육공원 및 장흥읍 일원에서 이봉주 선수와 함께하는 '제14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 2,500여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오전 8시 20분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스트레칭 체조 후 9시부터 풀코스, 하프코스, 단축코스(10km), 건강코스(5km) 순으로 출발한다.

탐진강변에서 출발하는 풀코스(42.195km)는 부산면 교차로를 거쳐 장흥읍을 지나 관동마을에서 반환한다.

하프코스(21.097km)는 지천터널 통과 100m 지점에서 돌아오며, 단축코스(10km)는 부산면 교차로에서 반환하는 코스다. 건강코스(5km)는 부산교 앞을 경유, 탐진강 제방길을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풀, 하프, 10km 참가자에게는 축원산물세트 기념품을, 5km 참가자에게는 고급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장흥=송호빈 기자

## 진도군, '미세먼지 줄이기' 저감대책 총력

진도군이 예산 4억5,000만원을 투입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진도군은 빈번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응에 들어갔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질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군민에게 상

시 제공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은 미세먼지 대응 주요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3억원) ▲전기자동차 보급(8,9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000만원) ▲탄소포인트제(3,000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쉼터로 알려진 황칠나무 조림사업으로 국도비와 군비

8억여원을 투입 진도를 수유리, 군내면 분토리, 지산면 심동리 마을 등 96ha면적에 황칠나무와 편백나무, 호두나무 등 15만여본의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진도군 환경선립과 환경정책담당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에는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거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